

제2장

2019 군정 성과 및 2020 군정 추진계획

66 제1절 2019 군정 성과

1. 총괄 66 / 2. 역점시책별 주요 성과 67

73 제2절 2020 군정 추진계획

1. 추진방향 73 / 2.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74

제1절

2019 군정 성과

1. 총괄

민선 7기 2년 차를 맞아 '사람이 희망인 울주'라는 비전 아래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울주를 실현하기 위해 6개 역점시책을 펼치며 복지, 문화·관광, 경제, 안전,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 해였다.

변화와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열린 행정 실현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주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였으며, 군민 의견 상호교환을 위한 원탁토론회와 우수시책 발굴, 제안제도 등 여러 가지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였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관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재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였다.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 시설을 확대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였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주 여건 마련에 이바지하였으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유치하여 낙후된 의료서비스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안전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 편리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정주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주문화센터를 건립하였고, 제4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 군 관

광의 양대 축인 산악관광과 해양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아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사업 등으로 346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추진에도 노력하였다.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농·어촌 기반구축을 위한 기틀도 다졌다. 수출 품목 다양화로 지역농산물 해외 판로를 개척하였고, 지역별 고소득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8개 작목반 7개 품목을 육성하여 농촌특화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울산농수산물도매 시장을 유지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 역점시책별 주요 성과

가.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열린 군정

울산에서는 최초로 삼남면에서 ‘면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했다. 지역을 위해 일할 면장을 직접 뽑고자 하는 주민 열기가 투표현장에서 그대로 느껴졌으며, 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장이 되었다.

군민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군수가 직접 민원해결사로 나선 ‘열린 군수실’은 200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언양 다개리 마을도로 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불편의 소리에 적극 대응하여 사유지 소유권을 20년만에 군으로 이전하는 등 장기간의 주민갈등과 불편을 해소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내실화하여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 32건, 74억원을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직접 반영되는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치단체 평가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군민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한 군민권익위원회, 민관협력을 통한 행정혁신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와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계층과 방법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출생부터 노후까지 행복한 복지·교육도시

인구 30만 시대를 열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2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혼인을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주거비용을 차등 지원하였다.

또한, 의료 및 교통 취약지역 임산부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 진료교통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개원, 다 함께 돌봄센터 3개소 설치, 중부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통해 공공 보육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의 건전 성장 기반을 조성하였다.

노인복지를 위해 10개소의 경로당을 신축·리모델링하고 35개소는 시설을 개선하였다. 33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 운영을 통해 2,367개의 노인 일자리 마련으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으며, 든든한 노후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어르신 역량 강화 교육, 경로당 및 양로원 등 노인 생활시설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돌봄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 입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 입소자 지원, 장애인 문화·체험 활동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의료 및 재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참여를 통해 성취감 획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마련과 주민참여형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복지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9월에는 2019 울주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울산 최초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주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선바위 도서관과 웅기종기 도서관 외에 천상 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세계 시민교육, 울주 아카데미 등을 통해 선진 주민의식을 강화하고, 3040 부모공감 콘서트, 주간특강 등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학습 욕구 충족과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울산 최초의 국립병원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유치하여 낙후된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정주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 악취관리 강화, 자연 친화적 거주 환경 제공, 재난 및 범죄 예방, 도로 등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다.

군민의 안전에 최우선 둔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이재민 관리시스템 등 12개 스마트 방사능 방재 시스템과 인공지능 안전 내비게이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심열섬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를 운행하고, 악취관리강화를 위해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생활권 등산로, 도시 숲, 도심 내 물놀이 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자연 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곡천천, 회야 지구, 효암지구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47대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편리한 도로·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9월 용촌 와지공단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하였고, 범서 굴화하나로마트 주변 도로 등 73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사 중심의 연

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청량 군도 18호선을 선형개량하고, 언양 반송~삼동 상작 간, 온양 군도 6호선(고산~회야댐) 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운산 공영주차장 등 5개의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해 35개소의 버스승차장 신규 설치와 9개소의 노후 승차장을 교체하고 100개소에 발열 의자와 에어커튼을 설치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을 위해 울주 사랑 택시 운영 19개소, 마실 버스 6개 노선을 운영하였다.

라.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KTX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여건 조성과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을 갖춘 한해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산악영화제인 제4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에 45개국 59편의 영화가 출품되었고,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영화제 관람객 수는 감소하였으나 영화 관람객 수는 작년 대비 52%가 증가하여 산악 전문영화제로서의 저력을 보여 주었다.

울주 관광의 양대 주축인 산악관광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7월과 8월 각각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주문화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자 울주 오디세이, 거리공연 예술가 활동 지원,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진해해수욕장 일원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윈드서핑, 딩기요트 등 해양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해양 캠프를 하여 해양 레포츠와 동력수상레저기구 체험 교육을 하였으며, 윈드서핑 최적의 장소인 진해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울산울주 진해PWA 세계윈드서핑대회와 울주군수배 전국윈드서핑 대회를 개최하여 해양 레포츠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다.

마.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육성으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청년구직난에 대응한 청년고용 촉진과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과정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였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조성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원전해체연구소를 우리군과 기장군이 공동 유치함으로써 원전해체 신산업 육성에 따른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상당 2,549건, 직업소개 2,333건, 취업 1,383명의 성과를 얻었으며,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중소기업 103개사 220명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경영지원으로 지역의 고용 확대를 견인하였다.

이 외에도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8개사의 3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고 해외무역관 지사화 연계사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선진 우수기업경영기술 연수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초를 마련하였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과 3D프린팅 운영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바. 경쟁력 있는 활기찬 농어촌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우리 군의 농가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배, 단감 등에 한정되어 있던 수출 품목에서 양파, 블루베리, 헛개 음료 등 수출 유망품목을 신규 발굴하여 수출 품목을 다양화시켜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에 이바지하였으며, 대파, 찰옥수수, 꿀 고구마 등 8개 작목반, 7개 품목을 지역별 고소득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여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축산분야에서는 한우 개량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처리용

툽밥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자연 순환형 축산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사육기반을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축산 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과 약품을 배부하고, 가축방역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17건의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우리 군은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하였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 종자 방류 등 4개 사업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자원 보존·증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9개 사업으로 어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청량읍 울리 일원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제2절

2020 군정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민선 7기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 사업의 전문성 및 추진력을 더욱 강화하고 추진 사업을 일관된 자세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아 2020년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울주'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대 역점시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역 점 시 책

-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교육도시
- ②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농어촌
- ③ 지속가능한 경제활력도시
- ④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 ⑤ 소통으로 혁신하는 군민참여도시
- ⑥ 내 삶을 지켜주는 녹색 안전도시

2.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첫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교육도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 지원금 확대 지급을 지속하고,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과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셋째 이상 자녀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7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오락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며, 무상급식 지원과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인터넷 학습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부 노인복지관 건립, 경로당 신축과 시설개선공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삼남 장애인 근로 사업장 이전 신축, 남부장애인복지관 신축, 울주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둘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농·어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 6차 산업 전략지구 지정과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과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가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토록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특화 소득증대사업,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조성 사업,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농가 노동력 절감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

여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리치파머를 꿈꾸는 2030 청년 농부의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 복합문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년창업과 퇴직 세대 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 도시민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경제활력도시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도시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두동·두서 거점형 공공타운 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KTX 복합특화단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복합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구현할 것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과 신규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지원 시책을 지속 발굴하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 울주를 만들 것이다.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일자리 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연계와 직업 만족도 제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산업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활력 도시를 만들 것이다.

넷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제5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간절곶 해맞이 행사, 울산옹기축제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 개최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고산 옹기마을은 전시·체험·행사를 연중 실시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와 삼동 울산관광단지, 서생 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산악 및 해양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울주군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관광도시 울주' 구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울주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기관의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과 역사문화공원 추진으로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보존하여 우리 군이 보유한 역사, 문화, 인물, 자연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 스토리 발굴과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반구대암각화 관람환경 개선, 암각화 유네스코 우선 등재 신청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로의 입지를 굳힐 것이다.

다섯째, 소통으로 혁신하는 군민참여도시

소통과 참여로 열린 공감 행정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열린 군수실과 읍·면별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해서 운영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인 원탁토론회, 우수시책 발굴,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공감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도시를 구현할 것이다.

여섯째, 내 삶을 지켜주는 녹색 안전도시

자연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시스템과 통합비상 발령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해상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우범지역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지역 안전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 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노면 청소차와 살수차 운행으로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 방사능 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방사능 재난 시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민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도시 숲 조성, 도시공원 정비, 근린공원 조성, 도심 내 물놀이시설 조성, 주요등산로 정비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도 노력할 것이며,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대북·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를 추진하여 하천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 것이다.